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2.6.(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0시 10분부터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2월 9일 10시에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를 면담하고, 2월 10일에는 9시 30분에 통일부와 태영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오후 4시 30분에는 영국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2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주최하는 통일 포럼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용원 비서 주재로 13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2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을 결

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농업 관련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바,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 및 내부 동향을 주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원회의를 두 달 만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 북한이 그렇다면 단일 의제로 전원회의를 연 사례가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궁금하고요. 통일부에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례가 있었는지는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정한 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22년도 451만 t이었고, 그 전해 2021년도에는 469만 t이었습니다. 다소 3.8% 정도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추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은 북한이 그동안 지난 1월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전원회의를 통해서 농업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룬 여러 가지 정황들을 유의하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아까 스위스대사라고 하셨는데 스웨덴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스웨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왜 만나시는 건지 안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요. 그리고 전에 장관님께서도 좀 이른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부 동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번 농업 문제를 다루거나 식량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발언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대담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이런 경우에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북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대사 면담은 스웨덴은 북한과의 수교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과 특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정례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장관, 통일부 장관과 계기가 될 때에 북한 내부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현안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